

1st Floor 1층 전시실

1 벽돌 등장

벽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. 오래 전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의 사대문명 발상지에서도 쓰여졌습니다.



인더스 모에나다로 유적 모형



이집트 물고기 구유적 건조 벽돌
(기원전 1400년경)



메소포타미아 우르 제 3왕조 벽돌
(기원전 2040년경)

2 세계의 벽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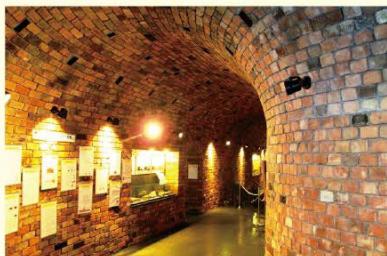
만리장성 벽돌
(14세기말)



로망 벽돌 (기원후 200년경)

3 호프만 가마 코너

일찍이 붉은 벽돌 제조의 주류를 차지한 호프만 가마 내부를 재현해 벽돌의 만드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

2층 전시실

2nd Floor 2층 전시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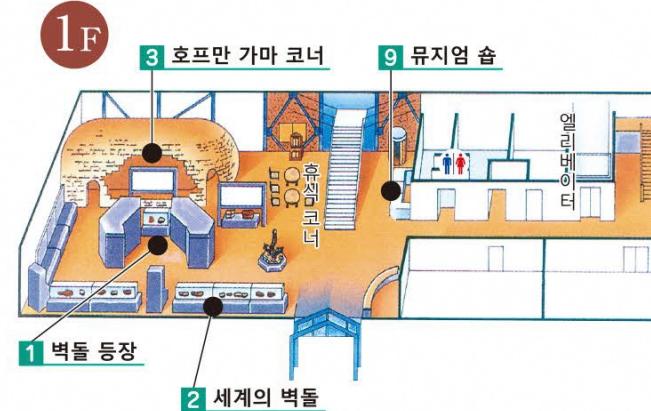
4 일본 벽돌의 행적

벽돌은 중국대륙·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불교 건축 재료로서 전해져 왔습니다.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의 「문명개화」로 인해 다수의 벽돌 건조물이 만들어 졌습니다.



구사법성 벽돌(1895년)

도쿄역모형



1층 전시실



어형 수뢰 창고 모형

5 마이즈루시와 벽돌

마이즈루시는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붉은 벽돌 건조물이 남아 있습니다. 창고와 공장 등 해군 관계 여러 시설을 중심으로 요새와 철도 시설, 전국에 네 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호프만 가마등이 있습니다. 그 수와 용도가 많은 점에서 마이즈루는 일본 유수의 붉은 벽돌의 도시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.

6 내화벽돌 코너

에도 막부 말기에 만든 반사로의 내화벽돌에서 현대의 내화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.



원폭돔의 벽돌

7 역사를 증언하는 벽돌

원폭 돔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사용된 벽돌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

8 특별전시실

9 뮤지엄샵